

‘사람과 사람’은 독자 여러분의 인물광장입니다.
제보를 기다립니다.

▶e메일 people@kyunghyang.com
▶전화 (02)3701-1202~4 / 팩스 (02)739-2472

한국인이 만든 ‘리본 모자’ 美서 히트

‘솔의 여왕’ 아레사 착용 후 화제… 루크 송씨 ‘대박’

미국에서 한 한국계 사업가가 만든 모자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1월 벅락 오바마 미 대통령 취임식 때 ‘솔의 여왕’으로 불리는 여가수 아레사 프랭클린이 쓰고 나와 화제가 됐던 이 모자가 인기를 끌면서 제조사에 주문이 밀려들고 있다.

화제의 모자는 프랭클린이 선보인 여성용 모자로, 머리를 다 덮을 정도의 커다란 리본으로 장식된 것이 특징이다. 프랭클린은 전 세계에 생중계된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 모자를 쓰고 노래를 불렀으며, 취임식이 끝난 뒤에는 워싱턴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모자를 기증했다. 박물관에 보존될 이 ‘역사적인’ 모자를 만든 사람은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미스터송 모자(Mr.Song’s Millinery)’라는 모자가게와 ‘모자(Moza)’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계 이민자 루크 송(한국명 송욱·36·사진)이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14일 송씨와 프랭클린의 인연을 소개하면서 남다른 귀각으로 ‘대박’을 터뜨린 송씨의 성공담을 전했다.

1982년 부모를 따라 서울에서 미국으로 이민한 송씨는 대학에서 생화학을 공부하고 뉴욕 파슨스 디자인스쿨에 진학했다. 친구들은 미술에 재능이 있는 송씨에게 화가가 되라고 권유했으나 그는 학비가 모자라 디자인스쿨을 마칠 수 없었다. 한 학기를 남겨두고 학교를 그만둔 그는



대출받은 학자금을 갚기 위해 모자를 만드는 일을 시작했다. 그에게 첫 성공을 가져다준 것은 가느다란 철사로 세집 모양의 틀을 만들어 실크 천을 엮은 모자였다. 싸구려 여성모자들이 주류였던 시장에 한 개 200달러짜리 고급 모자를 팔아 히트를 치면서 업계에 그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초창기부터 그의 단골이었던 프랭클린은 취임식 축하공연을 앞두고 가게를 찾아왔다. 송씨는 세 개의 모델을 보여준 뒤 리본 달린 모자를 적극 추천했다. 개당 200~900달러인 송씨 가게의 모자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싼 179달러짜리였지만,

취임식 공연 덕에 대히트를 쳤다. ‘취임식 모자’ ‘아레사 모자’라는 별명이 붙으면서 5000여건의 주문이 밀려들었다. 인터넷에는 이 모자를 합성해 엮은 유명인사들의 사진이 돌아다니고, 유럽과 일본, 대만, 러시아 등지에서도 주문이 몰리고 있다. 송씨 부모와 누나를 포함한 11명의 직원들로 운영되는 공장에서는 하루에 수작업으로 100개가량의 모자를 만드는데, 곧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회사의 매출액은 지난해 100만달러였으나 올해는 6~7배 이상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구정은기자 italgi21@kyunghyang.com

“영국 경기침체 우리도 책임” 캐머런 보수당수 대국민 사과



영국 야당인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런 당수가 경기침체 발생 전 국가재무 위기 등에 대해 미리 대처하지 못했으며 사과했다. 보수당은 그동안 고든 브라운 총리에게 경제정책을 이끌면서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해왔다. 캐머런 당수는 내년 총선에서 차기 총리로 유력 시되는 인물이다.

15일 BBC방송 인터넷판에 따르면 캐머런 당수는 지난 13일 버밍엄 상공회의소에서 행한 연설에서 “정치인들이 국민

의 믿음을 사고 경제 회복을 이끌어낸 과거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내각의 장관들은 물론 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죄송스럽다”면서 “우리는 은행 및 기업 채무에 관해 좀더 지적을 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캐머런 당수는 또 “지금의 모든 문제가 단지 노동당 정권이 등장한 뒤 생겨난 것만은 아니다”라며 “오늘날 우리 경제의 어

려움은 지난 10년 동안의 잘못된 아니라 수십년 동안 쌓여온 구조적 취약성에도 기인한다”고 밝혔다. 이는 1997년 노동당이 집권하기 전 18년간 통치한 보수당 정권의 규제완화 정책 등도 영국이 직면한 위기의 요인이 됐음을 시사한 것이다.

한편 알리스테어 달링 재무장관은 야당의 사과 요구에 대해 “정부는 금융규제 시스템을 강화되고 개선돼야 한다는 점을 계속 지적해왔다”고 반박했다.

박지희기자 violet@kyunghyang.com

오바마, 언론인 모임 대신 가족휴가

관례 깨고 ‘그리다이언 클럽’ 만찬 불참키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사진)이 오는 21일 열리는 워싱턴 중견 언론인 모임인 ‘그리다이언 클럽(Gridiron Club)’ 연례 만찬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백악관이 밝혔다.

124년 역사를 자랑하는 이 클럽의 만찬은 회원들의 초청을 받은 유명 인사들이 주요 현안들을 총과 노래, 연극 등으로 회화화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미국 대통령이 이 만찬에 참석해 연설을 하는 게 관례처럼 돼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의원 시절인 2006년에는 이 만찬에 참석했지만, 올해

는 두 딸 사샤와 말리아의 봄방학을 맞아 가족과 함께 캠프 데이비드에서 휴가를 보낼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1885년 이 클럽이 창설된 후 현역 대통령으로서 유일하게 취임 첫해 만찬에 참석하지 않았던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의 선례를 따르게 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4일 보도했다.

대신 백악관은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전임 조지 부시 대통령은 퇴임 직전인 2008년 만찬에 참석하는 등 재임 중 모두



부르며 고향 텍사스로 돌아갈 날을 고대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정치전문 일간 폴리티코는 이와 관련, “워싱턴 정치를 개혁하겠다는 오바마의 약속이 고작 그동안 대통령들이 관행대로 참석해오던 모임에 불참하는 것이냐”는 논쟁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정환보기자·연합뉴스

신중현, 세 아들과 음반 만든다

‘록의 전설’ 신중현씨(69·사진)가 세 아들 대철(42)·윤철(40)·석철(38)씨와 함께 음반 작업을 하고 있다. 신씨가 자신의 히트곡을 직접 노래하고, 사나위의 기타리스트 대철, 서울전자음악단의 기타리스트 윤철과 드럼 연주자 석철씨가 연주하는 방식이다. 세 아들은 2006년 아버지의 은퇴 공연에서도 한 무대에 섰다.

4년여 만에 2집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Life is Strange)’를 발표한 서울전자음악단의 윤철과 석철씨는 최근 “지난해 봄부터 올해 초까지 아

버지의 옛날 곡을 가족끼리 녹음하는 작업을 해왔다”고 밝혔다. ‘미인’ ‘빛속의 여인’ ‘님은 먼 곳에’ ‘미련’ 등 신씨가 작곡해 히트한 곡들을 총망라한다. 이들은 “얼마 전 경기 용인시 양지면에 사시는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전부 다시 녹음해야겠다. 마음에 안 든 식이다. 세 아들은 2006년 아버지가 선곡을 하시는데 마음에 드실 때까지 녹음해야 하니 발매일을 정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2집 타이틀곡 ‘고양이의 고향 노래’를 어린시절 아버지로 인해



겪은 기억이 담긴 노래라고 소개했다. 17세에 서울 용산의 미8군 무대에서 기타리스트로 활동을 시작한 신씨는 1962년 한국 최초의 로큰롤 밴드인 ‘애드 포(Add 4)’를 결성하면서 국내에 록음악의 씨앗을 뿌렸다. ‘봄비’ ‘미인’ ‘아름다운 강산’ ‘빛속의 여인’ ‘커피 한 잔’ 등을 작곡했으며 펄시스터즈, 이정화, 김주자, 박인수, 장현 등 거물급 가수를 길러냈다. 연합뉴스

어제의 오늘 ✦ 1935년 독일, 베르사유조약 파기 선언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인 1919년 6월, 승전국인 미국·영국·프랑스 등과 패전국 독일은 프랑스 베르사유궁전 ‘거울의 방’에서 강화조약을 맺었다. 이른바 베르사유조약이다. 440개조로 이뤄진 이 조약은 독일에 굴욕적인 것이었다. 독일은 모든 해외 식민지를 포기하고, 알자스 로렌 지방을 프랑스에 돌려줘야 했다. 전쟁 배상금 1320억마르크를 10년 안에 지불하고, 공군과 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으며, 육·해군 병력을 10만명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은 집권 초부터 위기에 빠져들었다. 히틀러의 나치스는 이 틈을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33년 총리에 취임한 히틀러는 은밀히 독일을 재무장시키는 데 착수했다. 35년 3월16일에는 베르사유조약 파기를 선언했다. 히틀러는 1년 후 라인란트에 진주하고, 38년 오스트리아를 점령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베르사유조약 체결 때와 달리 무기력했다. 독일이 체코 슬로바키아의 수데텐 지방을 요구하자, 영국·프랑스·이탈리아 지도자들은 38년 9월 뮌헨에서 히틀러와 회담을 열고 “더

2차대전의 전주곡

가장 강력한 나라는 프랑스였다. 독일이 배상금을 현금으로 낼 수 없을 경우 대신 영토를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23년에는 프랑스·벨기에 연합군 6만명이 독일 최대 공업지대인 루르 지방을 점령했다. 독일이 배상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독일인들은 파업으로 점령군에 맞섰고, 프랑스는 2년여 만에 루르에서 물러났다.

프랑스와 벨기에의 루르 점령은 독일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독일 정부가 루르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해 마르크와 발행을 늘리면서 독일 경제는 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었다. 신생 바이마르 공화국

이상의 영토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수데텐 병합을 승인했다. 히틀러는 그러나 39년 체코슬로바키아를 합병하고 폴란드를 침공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이렇게 시작됐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다. 사람들은 한 전쟁의 고통을 채 잊기도 전에 또다른 전쟁을 벌였다. 이전의 전쟁에서 교훈을 얻지도 못했다. 1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가 원만했더라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까. 프랑스나 영국이 히틀러에게 강하게 맞섰다면 어떻게 됐을까. 역사에 가정(假定)이란 없었지만,

김민이기자 makin@kyunghyang.com

인사

포스데이타 대표이사 박한용씨

포스데이타는 박한용 전 포스코 인력자원실장을 새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한다고 15일 밝혔다.

한독약품 대표이사 김철준씨

한독약품은 김철준 전략연구개발본부장(부사장)을 대표이사에 선임했다고 15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 ◇국실장 전보 ◇기획조정국장 서문용체 ◇공보실 ◇허창인 ◇총무 ◇김장호 ◇소비자보호센터 ◇조기인 ◇본생조정 ◇강길만 ◇감독서비스총괄 ◇김영민 ◇은행서비스총괄 ◇김영대 ◇일반은행서비스 ◇조영제 ◇특수은행서비스 ◇변대식 ◇저축은행서비스 ◇김준현 ◇상호금융서비스 ◇조욱현 ◇생명보험서비스 ◇김수봉 ◇손해보험서비스 ◇성인석 ◇금융투자서비스 ◇김간섭 ◇자산운용서비스 ◇천진성 ◇기업공시 ◇정은운 ◇자본시장조사1 ◇이정희 ◇자본시장조사2 ◇홍성화 ◇회계서비스2 ◇윤석남 ◇감사사무소 권인원 ◇법무실장 이기연 ◇비서 ◇이석우 ◇부산지원장 정이영 ◇제세입의실장 박세춘 ◇런던사무소장 오수상 ◇기업금융2실장 김진수 ◇실장(급) 승진 △조사연구실장 김광식 △인력개발 ◇경감제 △광주지원장 서경환 △대전 ◇이경구 △금융리스크제도실장 주원식 △외환업무 ◇양현근 △여신전문서비스 ◇조명현 △보험조사 ◇이진식 △기업공시제도 ◇이창수 ◇회계제도 ◇최금환 △금융증신지지원센터부센터장 이주형
- 특허청 ◇부이사관 승진 △전기전자심사국 유비쿼터스심사팀장 고광석 △특허심판원 심판관 임준호
- 한겨레신문사 △고문 최학래 △편집인·전문기자 장정수 △총괄사무이사 송우달 △광고담당 사무장 정영무

첫 민간기상센터장에 조석준씨

조석준 전 KBS 기상캐스터(사진)가 민간기상업체 케이웨더가 지난달 설립한 630에보센터 센터장으로 활동한다.

조 센터장은 15일 “일기예보의 민간개방을 앞두고 민간 기상센터가 설립됐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조 센터장은 서울대 대기학과를 졸업하고 공군기상장교를 거쳐 1981년 국내 최초 기상전문기자로 KBS에 입사, 20여년간 기상방송기자와 캐스터로 활동했다. 현재는 630에보센터장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겸임교수직을 맡고 있다.

제11회 관악대상 수상자 4명 선정



서울대학교총동창회(회장 임광수, 임광토건 회장)는 제11회 관악대상 수상자에 대덕전자 김정식 회장(참여부문), 대립산업 이준용 명예회장(협력부문), 서울대 의대 박재갑 교수(영광부문), Juneeshang사 이준형 회장(해외부문) 등 4명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상식은 20일 오후 6시30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다.

9대 연극배우협회장에 강대기씨

한국연극배우협회는 최근 열린 정기총회에서 강대기씨(사진)를 제9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임기는 3년. 강 선임회장은 TBC 탤런트 6기 출신으로 연극 데뷔작인 <레퀴엠>을 비롯해 500여편의 연극, 영화, 드라마에 출연했다.



신형 에쿠스 1호, 박수일 교수에게

박수일 서울대 경영대 명예교수(사진 오른쪽)가 현대자동차의 신형 에쿠스 1호차 주인공이 됐다.

현대차는 지난 13일 대치지점에서 신영동 국내영업본부장을 비롯한 회사 관계자들과 박수일 명예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신형 에쿠스 1호차 전달식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박 명예교수는 서울대 경영대학장, 한국 경영정보학회 회장, 한국 경영과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26세에 국내 최연소 교수로 강단에 올라 40년 이상 후학을 양성해왔다.

현대차 관계자는 “경영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자 사회적으로 성공을 이룬 오피니언 리더인 박 명예교수에게 1호차를 전



달함으로써 신형 에쿠스의 고품격 이미지를 잘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명예교수는 “현대차가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신형 에쿠스 제1호 소유자가 된 것은 영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일 신차발표회를 열고 공식적으로 판매에 돌입한 신형 에쿠스는 12일까지 총 2800여대의 계약 실적을 올렸다.